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 칼럼

8번 문제의 기막힌 우연	037
과학적 근거의 짚기	061
국어의 사주팔자	094
문제집의 불편한 진실	136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159
4800초의 시간 컨트롤	187
2014년 수능 시험의 법칙 적용 쾌거!	215



## Rule 7 Message!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만으로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려줄 수 없습니다. 국어 점수는 언어적 감, 국어 지식, 풀이 노하우 등 다양한 학습이 고등 사고를 거쳐 나오는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 Plus Item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국어 시험의 7가지 법칙은 어쩌면 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느끼는 무의식적인 문제 풀이의 감을 학습의 테마로 했으며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풀이 방법 및 기술서류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지문은 생략하고 해설 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일 만에 책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7가지의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100%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주관적인 국어 과목에 높은 확률의 규칙성을 이론화·유형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수능(80%)을 중심으로 중3, 고 1~2 성취도 평가 및 국어교사 선발문제까지 확대하여 폭 넓은 시기(1994~2014)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국어 시험의 법칙이 특정시기, 특정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국어 지식을 100% 쏟아 낼 시험의 감 혹은 문제 풀이의 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감(感)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message continue

<http://cafe.naver.com/rule7>

## Rule 7 사용방법 & 주의사항

1. 각 Rule의 안내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2. 연습문제는 A, B, C 세 단계로, 한 단계를 풀고 반드시 해설 확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연습문제의 지문은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설에 별도 탑재했습니다.
4. 연습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하여 풀어야 시험의 감(感)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5. 연습문제 채점 후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해설을 통해 문제 풀이의 감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6. 교재에 소개된 시험의 법칙, 시험의 원리, 출제 지침 등은 국어의 감각과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니 이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어에는 주관적인 학문 특성상 객관적인 수학처럼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7. 본 교재의 학습 목적이 여러분의 평소 국어 학습에 시험의 감(感)과 문제풀이의 넓은 안목을 더해 실전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Rule 7 event!

하나, 교재 학습 후 친구에게 추천할 경우 (카페에 구매자, 추천인 ID 등록)  
둘, 교재 학습 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셋, 교재의 오류를 신고할 경우 (오타, 정답오류, 해설오류 등)

참여 수험생 모두에게 문화 상품권(만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Rule 7 카페에서 상세 안내

▶ <http://cafe.naver.com/rule7> (자료 업데이트, Q & A, 국어 전문 칼럼)

# 시험의 법칙



## Rule 4

### [선(先) 꼬리]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은 지문의 끝 부분(단락)에 정답의 단서가 많다. 그래서 지문의 끝 부분(단락)을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1** 지문이 생략된 문제를 풀려고 한다. 지문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부분을 보겠는가?

- ① 처음(머리)                      ② 중간(몸통)                      ③ 끝(꼬리)

**Q2** 생략된 지문의 정보 중에서 한 가지만 알 수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 ① 글의 제목                      ② 글의 종류(장르)                      ③ 글의 주제  
④ 글의 제재(글감)                      ⑤ 지은이 성향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두 문제 다 선지 ③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먼저 2번 문제 선지의 특성을 살펴보자.

① 글의 제목	⇒ 글의 전체 내용을 압축, 대표하여 드러냄
② 글의 종류(장르)	⇒ 글의 목적에 따른 형식 (설명문, 논설문, 소설, 시 등)
③ 글의 주제	⇒ <b>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b>
④ 글의 제재(글감)	⇒ 글에 사용된 재료
⑤ 지은이 성향	⇒ 성격, 주변 환경 등

###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선지 ③의 글의 주제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글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주제를 알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의 주제가 '급식을 3교시가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라면 다음과 같이 글의 전반적인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① 글의 제목	⇒ '3교시 후 급식'
② 글의 종류(장르)	⇒ '주장의 글'
④ 글의 제재(글감)	⇒ '급식'
⑤ 지은이 성향	⇒ '아침밥을 자주 먹지 못해 배가 금방 고풐.'

다음 1번 문제를 보자. 글에서 선지 ③의 끝(꼬리) 부분엔 무엇이 있을까?

- ① 처음 ⇨ 배경, 안내, 글의 목적, 흥미 유발
- ② 중간 ⇨ 구체적 내용
- ③ 끝 ⇨ 정리, 요약, 강조

보통 글의 끝부분은 이전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한다. 그런 가운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곧, 주제가 드러난다. 물론 주제가 처음이나 중간부분에서도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끝부분에 많이 나타난다.

### 🍃 끝 부분을 먼저! 【선(先) 꼬리】의 법칙!

수능은 긴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지문의 처음과 중간보다는 꼬리(마지막 단락)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고 출제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정답의 근거를 끝부분에 많이 설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문에서 꼬리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풀이이다.

### V. 선(先)-꼬리의 법칙

- 1) 지문 전체를 4등분 한다.
- 2) 지문의 꼬리 부분(4/4)을 먼저 읽는다.
- 3) 지문의 꼬리 부분과 관련된 선지를 찾는다.
  - ▶ 지문의 꼬리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을 가능성은 다른 부분보다 3배 이상 높다.



**지문 & 해설**

(가) 일반적으로 동식물에서 종(種)이란 '같은 개체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낳길 수 있는' 또는 '외양으로 구분이 가능한' 집단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균처럼 한 개체가 돌로 분열하여 번식하며 외양의 특징도 많지 않은 미생물에서는 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

(나) 미생물의 종 구분에는 외양과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미생물이 어떻게 배양되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모든 미생물에 적용될 만한 공통적 요소가 되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날 미생물 종의 구분에는 주로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많은 유전자로 구성되는데, 특정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미생물 간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다. 종의 구분에는 서로 간의 차이를 잘 나타내 주는 유전자를 이용한다. 유전자 비교를 통해 미생물들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유전 거리'라 한다. 유전 거리가 가까울수록 같은 종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 하지만 유전자 비교로 확인한 유전 거리만으로는 두 미생물이 같은 종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특정 유전자가 해당 미생물의 전체적인 유전적 특성을 대변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미생물 간의 유전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유전체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유전적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를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전체의 특성을 화학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얻어진 유전체 유사도는 종의 경계를 확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림(생략)에서 각 점은 두 미생물 사이의 유전 거리와 유전체 유사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림(생략)을 보면, 두 미생물의 유전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유전체 유사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체 유사도가 70% 이상일 경우 유전 거리는 일정 수준 미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부터 '서로 유전 거리가 가까우며 70% 이상의 유전체 유사도를 보이는 미생물 집단'이라고 하는 미생물 종의 정의가 도출된다.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01**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내 문제

- ① 종 구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선택한다.
- ② 미생물의 생리적 특성은 배양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 ④ 동식물은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하여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 ⑤ 미생물의 유전체는 DNA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전자로 구성된다.

발문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이 꺼리는 유형이다. 왜냐하면, 선지와 지문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의 첫 단락이 아닌,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었다면 빠르게 선지 ③이 답임을 확신할 수 있다. 마지막 단락을 따로 보면,

(마) 유전적 특성을 이용한 미생물의 종 구분은 학술적 연구 외에도 의학이나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유전체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미생물의 종을 보다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외양보다 유전적 특성이 미생물 종을 명확하게 구분해 준다. (정답)

'유전', '미생물 종 구분'란 어휘가 두 번씩 나타났으며, 이것이 선지 ③에도 나타나 있다. 그뿐만 아니라 ③은 꼬리 지문인 (마)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 시험의 원리 XIII

**보편적인 문제풀이 방법은 경쟁력이 없다.**

발문 읽기 ⇨ 각 선지의 내용확인 ⇨ 지문 첫 단락부터 읽기  
⇨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비교해보기 ⇨ 정답 및 오답 판정

위와 같이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서 꼬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꼬리 지문을 통해 정답 선지를 발견했다면 굳이 다른 나머지 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답을 확신했는데도 심리적 불안 때문에 나머지 선지와 지문을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해당 문제에 적절한 표시를 해 두었다가 모든 문제를 다 풀 후 검토해보아도 늦지 않는다.

지문 & 해설

논증은 크게 연역과 귀납으로 나뉜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확실히 참인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지식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귀납 논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수많은 사례를 관찰한 다음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후에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까마귀까지 포함하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 귀납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에 신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귀납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수많은 까마귀를 관찰한 사례에 근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 중에서 검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퍼는 귀납의 논리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귀납이 아닌 연역만으로 과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지식이 반증 사례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추론하는 것은 순전히 연역적인데, 과학은 이 반증에 의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다음 논증을 보자.

- (ㄱ) 모든 까마귀가 검다면 어떤 까마귀는 검어야 한다.
- (ㄴ) 어떤 까마귀는 검지 않다.
- (ㄷ) 따라서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 것은 아니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귀납에 의해서 참임을 보여 줄 수는 없지만, 이 논증에서처럼 전제 (ㄴ)이 참임이 밝혀진다면 확실히 거짓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ㄴ)이 참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지식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 02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안내 문제

- ①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 ②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항상 참이다.
- ③ 치밀하게 관찰한 후 도출된 귀납의 결론은 확실히 참이다.
- ④ 과학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라는 점에서 연역의 결과이다.
-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 03 뒷글로 미루어 볼 때,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내 문제

- ① 충분한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반증 없이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 ③ 실패한 지식이 곧 성공적인 지식임을 명심하라.
- ④ 수많은 반증의 시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
- ⑤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

### [선(先) 꼬리]의 법칙으로 1 + 1 = 2 문제를 동시에 해결!

두 문제 모두 정답의 근거가 꼬리 부분에 있다. 꼬리 부분만 따로 놓고 이와 관련 있는 선지를 찾아보자.

포퍼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이런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다. 참신하고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서, 실제로 반증이 되면 실패한 과학적 지식이 되지만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 성공적인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없는 지식, 곧 아무리 반증을 해 보려 해도 **경험적인 반증이 아예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가령 '관찰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힘이 항상 존재한다.'처럼 경험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할 수 없는 주장이 그것이다.

## 02 ⑤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는다. (정답)

꼬리 지문에서 경험적인 반증이 불가능한 지식은 선지 ⑤의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귀납의 논리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03**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 (정답)

포퍼의 견해를 꼬리 지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담한 가설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선지 ②에서 과감하게 가설을 세운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②에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라고 거의 그대로 나타나 있다.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면 답이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 다음과 같이 다른 표현을 썼다.

지문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려는 노력
정답 ②	과감하게 가설을	세우고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시도

이는 다음과 같은 시험의 지침을 준수한 것이다.

**객관식 출제 지침 中**

“지문의 내용을 선지로 옮길 때에는 정답의 단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번에는 꼬리 지문만으로 무려 3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경우이다.

**[04-06]** 다음 꼬리 지문에 집중하며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08 9월 평가원 |

**지문 & 해설**

인간 사회와 더불어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기술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에 따라 기술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되어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기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를 진보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국가 기술 정책의 수단이 기술 영향 평가(technology assessment)이다. 기술 영향 평가는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및 일반 시민들이 특정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한 다음,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의 기술 영향 평가는 이미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에 평가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평가와 처방은 기술에 대한 ‘통제의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제의 딜레마란, 비록 기술 영향 평가를 통해 어떤 기술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기술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